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초등/소년부

초등부
소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FUN FUN PLAY
친구들이 재미있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교육 내용	04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둘째 주	
분반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English Bible Study	28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5
어린이 QT God's Time	36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7
어린이 QT God's Time	48
다섯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5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59
어린이 QT God's Time	60
워드포토	70
편편 플레이	
숨은그림찾기	72
이달의 퍼즐	73
워드큐티스티커	75
교육활동	77



5월 교육내용
답게 살아가는 우리



암송 구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로마서 8장 2절 -

♥첫째주♥

“사무엘이
늙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사무엘상 8장 7절)
*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둘째주♥

“우연에서
마침으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룻기 2장 3절)
*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셋째주♥

“마지막 수업”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할지라 (열왕기상 2장 3절)
*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넷째주♥

“생명의 성령”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우리

♥다섯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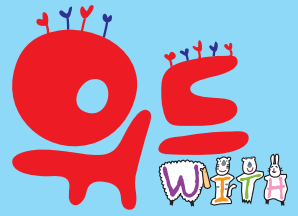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창세기 35장 3절)
*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실천 내용

1.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요.
2.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5월 첫째주
2021년 5월 2일~8일



Memory Time



사무엘이 늙으매

첫째주

♥ 주제 : 답게 살아가는 우리

♥ 암송구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 사무엘상 8장 7절

♥ 오늘의 주제 : 사무엘이 늙으매 ▷ 사무엘상 8:1-9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1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절)
- 2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나요? (5절)
- 3 사무엘은 장로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6절)

★ 교육 활동 -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요”

준비물 - 활동지, 가위, 필기도구, 양면테이프나 풀(접착제)

- 1 양의 몸통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요”라고 적어주세요.
- 2 활동지를 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 3 (보기의 그림을 참고하여) 양의 다리와 머리 위에 몸통을 붙여주세요.
- 4 몸통 위에 뿔, 귀, 십자가를 붙여주세요.
- 5 완성된 양 뒷면에 테이프를 붙여 눈에 잘 띄는 곳(성경책, 핸드폰, 책상 등)에 붙여주세요.
- 6 양을 볼 때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다짐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지도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고, 그들의 잘못된 문화와 행동을 본받았어요.

시간이 지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하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반대로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곤 했어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려주셨어요.

친구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욱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다짐해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토론하기

- Q1**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찾나요?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보아요.

Pray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열왕기하 5:1-19 “나아만 장군의 병이 나았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0.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 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생략)

14.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 강으로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왔다.

15.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16.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하고 사양하였다. 나아만이 받아 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17.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두어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18.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 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여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사환: 집안 일을 돕는 하인,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권한을 가진 일꾼

수행원: 높은 지위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거나 보호하는 사람



with
관찰

1. 자신의 사환을 시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 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0절)

2. 말씀을 읽고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으세요. (17절)

“저는 이제부터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나
 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with
생각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자신의 병을 고쳐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엘리사가 대단한 장군인 자신을 특별히 대접하고 잘 치료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는 말에 화를 내고 불평을 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고 나자 그의 몸은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해졌어요. 이것을 본 나아만은 모든 수행원과 함께 엘리사에게로 가 온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어요.

with
결심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나아만 장군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능력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열왕기하 5:20-27 “게하시의 욕심”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0.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21. 그래서 게하시는 곧 나아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아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22.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 그러자 나아만은 "드리다뿐이겠습니까? 두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자루에 넣고, 옷 두 벌을 꺼내어서 두 부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24.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 안에 들여 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25.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나?" 그러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6.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 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27.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로 옮겨갈 것이고, 네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시종 : 종, 돕는 사람

강권 :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권함

나병 :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병, 피부에 반점이 생기거나, 벗겨져 흉해지고 몸에 마비가 오는 병

with
관찰

1. 나아만과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챙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2절)

2. 게하시는 결국 어떤 병에 걸리고 말았나요? (27절)

with
생각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 주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아무것도 받지 않은 엘리사를 본 게하시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아만을 뒤쫓아가 엘리사가 돈과 옷을 필요로 한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나아만은 흔쾌히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꺼내어 주었고, 게하시는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엘리사는 속일 수 없었어요. 결국 게하시의 자신과 자신의 자손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벌을 받고 말았어요.

with
결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게하시의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말았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거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도 지켜 보고 계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는 우리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욕심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21.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열왕기하 6:1-33 “시리아와의 전쟁 1”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 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 말과 불 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 시리아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병거: 전쟁할 때 쓰는 수레

포위: 주위를 둘러싸



with
관찰

1. 강한 군대로 이스라엘 성읍을 포위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15, 18절)

2. 두려워하는 시종에게 엘리사는 뭐라고 말했나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 보세요. (16절)

“ !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with
생각

시리아 왕은 말과 병거로 중무장한 큰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성읍을 포위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엘리사는 시리아의 큰 군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군대의 눈을 멀게 해 사마리아 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고,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with
결심

시리아의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 성읍을 포위했을 때에도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강한 군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길 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생길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21.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열왕기하 7:1-20 “시리아와의 전쟁 2”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내일 이맘때 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2.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담하였다. "바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3. 그 무렵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4.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 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5.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 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6.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7. 황혼녘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 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어귀 : 들어가는 입구

스아 : 고체를 측량하던 단위로 약 7.3ℓ에 해당된다

세겔 : 약 11.4g에 해당하는 중량 단위

기근 :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림



with
관찰

1.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 군대가 도망간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3절)

□	□	□	□	□	□	□
---	---	---	---	---	---	---

2.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시리아 군대를 도망가게 하셨나요? (6절)

- ① 헛 족속과 이집트의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이 싸우러 와서
- ② 기근이 심해 먹을 것이 없어져서
- ③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셔서
- ④ 전쟁을 할 무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with
생각

얼마 뒤 시리아는 또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성읍을 포위했어요. 먹을 것이 거의 떨어지고만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하고 두려워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어요.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셔서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왕들과 연합하여 시리아와 싸우러 온다고 착각한 시리아 군대가 황급히 도망치고 만 것이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with
결심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군대가 포위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엘리사처럼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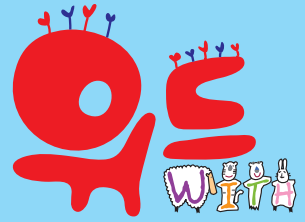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어려움 속에서도 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로마서 8장 2절 -



5월 둘째주
2021년 5월 9일~15일



Memory Time



우연에서 마침으로

둘째주

♥ 주제 : 답게 살아가는 우리

♥ 암송구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 3절

♥ 오늘의 주제 : 우연에서 마침으로 ▶룻기 2:1-7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2절)
- ② 룻은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무엇을 주웠나요? (3절)
- ③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요? (3절)
- ④ 보아스가 밭에서 베는 자들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요? (4절)
- ⑤ 보아스의 말을 듣고 베는 자들이 보아스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요? (4절)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둘째주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룯이 살고 있던 모압 지방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밭에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룯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룯은 밭에서 이삭을 베는 사람들이 흘리고 간 이삭을 주워 식량으로 삼았어요. 열심히 이삭을 줍던 룯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우연히 도착하게 되었지요. 같은 시각 보아스도 자신의 밭을 찾았어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러 온 것이예요. 그곳에서 보아스는 룯을 눈여겨보았고, 결국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훗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된답니다.

‘우연’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황이나 계획에도 없는 상황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마침’은 가장 알맞은 상황이나 가장 적절한 상황에 사용하는 말이지요. 룯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한 일, 룯이 이삭을 줍다가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간 일, 보아스가 마침 자신의 밭에 나온 일은 모두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섭리’라고 부른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도 없고, 계획도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토론하기

- Q1.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은 경험이 있나요?
함께 나누어주세요.

Pray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해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열왕기하 17:1-41 “불의한 왕 호세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유다의 아하스 왕 제 십이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2.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생략)
6. 드디어 호세아 제 구년에 앗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앗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7.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8.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9.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10.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이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11.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12.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숭배를 하였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거역 : 명령을 어기고
배반함

망대 : 적이나 주위를
살피기 위해 높이 세운
곳

산당 : 신을 예배하는
장소

with
관찰

1. (0/X 문제) 호세아는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한 왕이었다.

O X

2.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게 한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절)

- ① 다윗 ② 호세아 ③ 솔로몬 ④ 히스기야

with
생각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이방의 신상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겼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악한 행동으로, 십계명 중 첫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어긋나는 일이었지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해주셨지만 호세아와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로 인해 앗시리아 사람들에게 잡혀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고 말았어요.

with
결심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읽는 시간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우상’임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를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내가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만 섬기는 제가 되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열왕기하 18:1-8 “의로운 왕 히스기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 삼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2.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라의 딸이다.
3. 그는 조상 다투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4. 그는 산당을 헐어 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 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 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6. 그는 주님께에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7.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시므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앗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8.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여러 산당을 헐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유다 왕 중에
그만한 왕이 없었다고 평가받은 왕은 누구인가요? (1, 4, 5절)

□ □ □ □

2. 다음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다음의 빈 칸을 채워
보세요. (7절)

“□ □ 께서 그와 같이 계시므로, 그는 늘 □ □ 하였다”

with
생각

히스기야는 선대의 왕들이 세웠던 우상과 산당들을 모두 제거하고, 대대로 이방
나라들을 섬겼던 일도 그만두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려는
결단이었지요. 그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기뻐하셔서 그의
모든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 주셨어요.

with
결심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믿음은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해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따르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열왕기하 18:9-37 “**랍사게의 비방**”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8.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앗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29.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 낼 수 없다.
 30.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앗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31.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앗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 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32.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33. 모든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34.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 내었느냐?
 35.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낸다는 말이냐?"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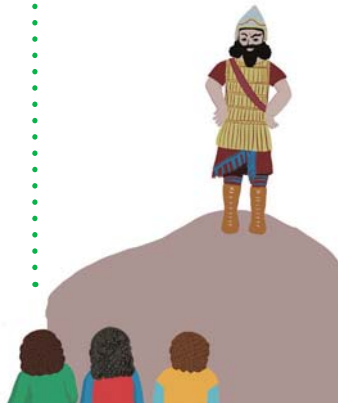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비방: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조약: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약속



with
관찰

1.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고 조롱하며, 하나님마저 비방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8절)

- ① 랍일게 ② 랍이게 ③ 랍삼게 ④ 랍사게

2. 랍사게는 어느 나라의 왕의 말을 전하고 있나요? (28절)

--	--	--	--

with
생각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앗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하고 평화를 조건으로 막대한 양의 공물을 요구했어요.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공간을 털어 모두 바쳤지만, 산헤립은 이번엔 장수 랍사게를 보내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였어요. “히스기야는 너희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 나(산헤립)에게로 나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도 믿지 말아라. 세상의 어떤 신이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이냐!”

with
결심

랍사게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에 빠져 차라리 앗시리아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랍사게의 비방은 백성과 왕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앗시리아를 의지하라는 유혹이었어요. 마귀는 이렇게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를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어떠한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with
말씀

열왕기하 19:1-37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4.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 놓은 뒤에,
 15.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16.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산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17. 주님, 참으로 앗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18.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앗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19.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 (생략)
29.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30.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 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31. 살아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 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사신 :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

그룹 : 천사

환난 : 근심과 재난

with
관찰

1.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읽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19절)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만이 홀로 주 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2.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무엇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나요? (31절)

- ① 히스기야의 기도 ② 주의 열심 ③ 유다 백성의 열심 ④ 전쟁의 승리

with
생각

랍사게의 조롱과 비방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산헤립과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주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 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앗시리아가 침략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유다 땅에 평화가 찾아와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열심히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응답 해주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산헤립의 비방과 조롱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로 나아오는 모습을 기뻐하시며 ‘주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 어려움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실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NGLISH BIBLE STUDY



마태복음 7장 24-29절 (새번역성경) / Matthew 7:24-29 (NIRV)

Commitment — Making a plan and putting it into practice

헌신 -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것

24.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5.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26.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7.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29.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Matthew 7:24-29 (NIRV)

24. "So then, everyone who hears my words and puts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wise man. He builds his house on the rock.
25. The rain comes down. The water rises. The winds blo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But it does not fall. It is built on the rock.
26. But everyone who hears my words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foolish** man. He **builds** his house on **sand**.
27. The rain comes down. The water rises. The winds blo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And it falls with a loud crash."
28. Jesus finished saying all these things. The crowds were amazed at his teaching.
29. That's because he taught like one who had authority. He did not speak like their teachers of the law.

Vocabulary

Practice - 실천

Build - 짓다, 건설하다

Foolish - 바보 같은

Sand - 모래

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26. But everyone who hears my words and does not put them into p_____ is like a f_____ man. He b_____s his house on s_____.

Interpretation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종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혜로워서 큰 돌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지만, 큰 돌 위에 집을 튼튼히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어리석어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사람은 큰 돌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NGLISH BIBLE STUDY



Application

Let's think about this. What would happen if you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your exam but didn't actually go to school to take the exam? You will automatically get a zero on your exam because you didn't take the exam. Growing in faith doesn't work by merely cramming more information about the Bible into our brain. All of that knowledge in our head means nothing if we don't actually put our knowledge into action. To fully experience and grow in faith, we need to practice our faith. And it takes commitment. Thankfully, we are not alone as we commit to live out the Word. God is with us. He can help us as we practice following Him.

같이 생각해봐요, 만약에 밤새 시험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시험을 보러 학교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아무리 오래 했다 해도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빵점을 받게 될 거예요. 단순히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가 아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말씀을 실천해야 해요. 실천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신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Let's memorize

Let's memorize Matthew 7:26. NIRV

마태복음 7장 26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But everyone who hears my words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foolish man. He builds his house on sand.”

- Matthew 7:26. NIRV -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로마서 8장 2절 -



5월 셋째주
2021년 5월 16일~22일



Memory Time



마지막 수업

셋째주

♥ 주제 : 답게 살아가는 우리

♥ 암송구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 2:3

♥ 오늘의 주제 마지막 수업 ▷열왕기상2:1-4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 말씀나눔

- ①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누구에게 마지막 말을 하였나요? (1절)
- ②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이 되라고 하였나요? (2절)
- ③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는 어디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하나요? (3절)
- ④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나요? (4절)
- 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나누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해요. 누구나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평생 가슴에 품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언을 소중하게 여기지요. 다윗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우고,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한 거예요.

친구들! 다윗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다윗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말씀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말씀을 읽기로 다짐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토론하기

- Q1. 만약 친구들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보아요.

Pray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열왕기하 20:1-11 “히스기야의 기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2.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3.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 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4.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5.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 주겠다. 사후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6. 내가 너의 목숨을 열다섯 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맞서 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7.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와 반죽을 가져 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 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후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9.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 실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십 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십 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10.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십 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십 도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11.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드리운 그 그림자를 뒤로 십 도 물러나게 하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도성 : 임금이 있던 도읍지가 성으로 이루어진 것

with
관찰

1. 오늘 본문에서 병들어 죽게 된 왕은 누구인가요? (1절)

- ① 히스기야 ② 이사야 ③ 므낫세 ④ 시드기야

2.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예언자는 누구인가요? (1, 4절)

- ① 요나 ② 이사야 ③ 호세아 ④ 예레미야

with
생각

히스기야는 병으로 인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곧바로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즉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도움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가는 기적을 징표로 보여주셨답니다.

with
결심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지요. 아마도 그는 과거 앗시리아의 산헤립과 랍사게의 위협에서 그와 나라를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렸을 거예요. 두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보길 원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열왕기하 20:12-21 “히스기야의 교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2.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므로닥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 왔다.
13.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 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 주었다.
14. 그 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15.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6.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7.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오면,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네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 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8.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19.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 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20.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 들였는지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21.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친서 : 왕이 쓴 편지

포로 : 사로잡은 적

with
관찰

1. 히스기야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낸 왕은 어느 나라의 누구였나요? (12절)

의

2.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나라의 멸망을 말씀하시며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어느 나라로 옮겨져 갈 것이라고 했나요? (17절)

with
생각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왕으로 칭송을 받았어요. 앗시리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 받았던 히스기야는 그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말았지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오자 앗시리아에게 대항하는 같은 동맹국으로서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나라의 창고, 무기, 보물 등 곳곳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며 자신의 군사력, 경제력을 자랑하고 말았어요.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with
결심

히스기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감사하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열왕기하 22:1-20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 요시아 왕 제 십팔년에 왕은, 아살랴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4.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 하도록 하고,
5.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6.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7.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 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8. 힐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 보았다.
9.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 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 둔 돈을 쏟아 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힐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소리로 읽었다.
10.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 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11. 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12.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쭙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서기관 :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며 보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

미장이 : 집을 짓거나 고칠 때 흙을 바르는 일을 하는 사람

with
관찰

1.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한 왕은 누구인가요? (3절)

2. 대제사장 힐기야는 성전을 보수하던 중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그것을 왕의 앞에서 읽었어요. (8, 10절)

O

X

with
생각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자 다시 유다는 우상숭배로 가득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져있는데도, 우상숭배에 빠진 왕과 백성들은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런 때에 왕이 된 요시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수리하였고 그러던 중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버려져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요시아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우리의 조상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바로 그의 옷을 찢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문제된 행동들을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유다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열왕기하 23:1-30 “유월절을 지켰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2.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 때에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3.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생략)
21.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22.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23. 요시야 왕 제 십팔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24. 요시야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 버렸다.
25.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박수: 남자 무당

드라빔: 구약 시대에 히브리인들이 점을 칠 때 쓰던 집안의 수호신상



with
관찰

1. 요시아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지켰던 명절은 무엇인가요?
(23절)

2. 다음은 요시아 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말씀을 읽고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으세요. (25절)

“이와 같이 을 다 기울이고 을 다하고 을
다 기울여 모세의 을 지키며 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with
생각

요시아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율법책에 적힌 말씀을 크게 읽어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은 주님을 따르고,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어요. 이어서 요시아는 모든
도시에서 있는 산당과 우상들을 모두 몰아냈어요.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여 지켰어요.

with
결심

요시아가 율법책의 말씀을 그제 혼자 듣는 것에서 그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요시아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요시아
처럼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지키도록 돕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로마서 8장 2절 -



5월 넷째주
2021년 5월 23일~ 29일



Memory Time



생명의 성령

넷째주

♥ 주제 : 답게 살아가는 우리

♥ 암송구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2

♥ 오늘의 주제 생명의 성령 ▶로마서 8:1-11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우리.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1절)
- ②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 것은 무엇인가요? (2절)
- ③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7절)

★ 교육 활동 - “기도손 만들기”

준비물 - 활동지(별지), 가위, 펜

- ① 손 모양을 따라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 ② 손바닥 안에 있는 흰색 칸에 성령님께 감사한 것들을 적어주세요.
- ③ 점선을 따라 기도손이 겹쳐 질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
- ④ 생명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기도해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성령강림절'이에요.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언제 처음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행 2:1-42) 그래서, 성령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교회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매년 부활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에 지키고 있지요. 또한, 성령강림절은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난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지요. 성령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 마음에는 참된 평안도 얻게 되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성령님께서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어 하시지요. 물론,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토론하기

Q1.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보아요.

Pray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열왕기하 25:1-30 “멸망하는 왕국, 사라지지 않는 희망.”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시드기야 왕 제 구년 열째 달 십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2.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 십일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3. (그 해 넷째 달) 구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4.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 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5.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6.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고,
7.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8.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 십구년 다섯째 달 칠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9.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생략)
27.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서른일곱 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빌로르다 왕이 왕위에 오를 그 해 열두째 달 이십칠일에, 에빌로르다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28.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29.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30.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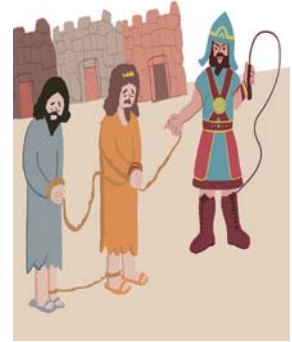
Check

Q. 단어사전

포위: 주위를 에워쌌

심문: 자세히 따져서 물음

특사: 특별히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하여 줌



with
관찰

1.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요? (1절)

2. 유다를 멸망하게 한 왕은 어느 나라의 누구 였나요? (1, 8절)

의 왕

with
생각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이미 여호야김-여호야긴이 왕이었을 시절 바빌로니아에 의해 1차 점령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유다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세우는 등의 죄악을 저질렀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왕은 죽임을 당하고, 건물들은 불타고, 모든 백성들은 바빌로니아로 잡혀가 포로가 되고 만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역사의 완전한 끝은 아니었어요. 수 십년 후,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바빌로니아의 에월드로닥 왕에 의해 석방되었고 그는 왕과 한 상에서 먹는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with
결심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의 죄로 인해 왕이 죽임을 당하고, 성의 모든 건물이 불타고, 백성은 전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버리는 비극이 일어났지만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야긴 왕이 포로에서 풀려났던 것이지요. 자신의 잘못으로 멸망당하고 있는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희망을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21.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느헤미야 1:1-11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이십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2.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곳에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 보았다.
3.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4.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5.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6.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7.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니다.
8.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겠지만,
9.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10.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11.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 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형편 : 일이 되어가는
 상태나 결과

업신여김 :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

자복 : 저지른 죄를 자백
 하고 복종함

with
관찰

1.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절)

2. 느헤미야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읽고 다음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11절)

에게 을 받들어 올리는 사람

with
생각

느헤미야는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곳에서 인정받아 왕의 술을 맡은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간 동포들과 자신의 나라 유다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았지요. 그리고 유다에서 온 하나니를 통해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예루살렘이 모두 파괴되어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이 당하는 고통으로 생각하여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with
결심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아 높은 지위에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임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울며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백성 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3 넷째주

날짜 : 2021.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느헤미야 2:1-9 “느헤미야의 사명.”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아닥사스다 왕 이십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2.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3. "임금님, 만수무강 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문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4.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5.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문허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 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그 때에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릴것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가까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7.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8. 또 왕실 숲을 맡아 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채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9.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안색: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나 빛깔

with
관찰

1. 느헤미야가 유다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왕은 누구인가요? (1점)

왕

2.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라고 하자 느헤미야는 무엇을 먼저 한 후에 왕에게 바라는 것을 말했나요? (4점)

- ① 말씀을 읽은 후 ② 왕의 신하에게 자세한 소식을 들은 후
- ③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④ 왕의 안색을 살핀 후

with
생각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일을 맡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갔어요. 느헤미야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게 근심이 깊어보였어요. 아닥사스다는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었고, 이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지요.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라고 묻자,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주셔서,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with
결심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그 곳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포로된 민족의 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요청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을 부탁하는데 있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세우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열심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나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준비되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2021. .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느헤미야 2:11-20 “예루살렘 재건이 시작되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 샘'을 지나 '거름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 '샘 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 그래서 그 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 그 때에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수행원 : 높은 지위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거나 보호하는 사람

수모 : 모욕을 받음

with
관찰

1. 느헤미야는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였나요? (11절)

2. 말씀을 읽고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으세요. (17절)

“이제 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with
생각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은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불러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재건 사업을 꿈꾸게 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 이 일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함께 힘을 내 성벽을 다시 쌓기로 결단하였어요.

with
결심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신을 이곳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놀라운 도우심에 대해 간증하였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 예루살렘을 세우기로 결단하였어요. ‘간증’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간증해 보세요.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절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늘 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로마서 8장 2절 -



5월 다섯째주
2021년 5월 30일~6월 5일



Memory time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다섯째주

♥ 주제 : 답게 살아가는 우리

♥ 암송구절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 창세기 35:3

♥ 오늘의 주제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 창세기 35:1-7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셨나요? (1절)
- ② 야곱은 그의 식구들에게 베엘에 올라가기 전 무엇을 하라고 했나요? (2절)
- ③ 야곱은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어디에 묻었나요? (4절)
- ④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베엘에 이르러 단을 쌓고 그곳을 무엇이라 불렀나요? (7절)
- 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이었지만 우리 가정에는 축복이었던 일이 있나요? 함께 나누어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다섯째주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주변의 부족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주 아팠어요. 속상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살면서 제단을 쌓으라"(창35:1) '베엘'은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먼저 집안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엘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 이후, 주변 부족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아무도 야곱의 집안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우리 가정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거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늘 함께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예요. 시간을 구별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미래를 맡겨드리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족에게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나누어보아요.

Pray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GOD'S 다섯째주 TIME 1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느헤미야 3:1-32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 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2.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르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3. '물고기 문'은 하스나아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엮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4.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요 우리야의 아들인 므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므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5.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6.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인 므술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엮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7.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메로놏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8.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해야의 아들 웃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봉헌: 하나님께 물건을 바침

보수: 건물이나 시설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침

with
관찰

1. 양 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절)

대제사장 과 동료 들

2. 성벽 재건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집안의 사람들이었나요? (5절)

with
생각

모두가 힘을 합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돕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여리고 사람들, 금으로 섬세한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던 웃시엘 등 다양한 곳에 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성벽 건축에 기쁘게 동참했어요.

with
결심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닌, 유다 백성들이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았을 때 재건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함께 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내가 먼저 선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멋진 일을 이루어가실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멋진 꿈을 기대하며 선한 일을 시작하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내가 먼저 선한 일을 시작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GOD'S TIME 2

다섯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느헤미야 4:1-23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해.”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 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 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될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고 하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생략)
-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생략)
- 그 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야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야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 주신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분개: 갑자기 상대방을
덜쳐 침

무장: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



with
관찰

1. 성벽 재건의 소식을 듣고 누가 몹시 화를 내었나요? (1절)

2. “들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인가요? (3절)

 사람

with
생각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사람 도비야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업신여기며 “다시 쌓아도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고 빈정거렸어요.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이러한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서 성 쌓는 일을 계속했어요. 이에 산발랏과 도비야를 비롯한 대적들은 유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느헤미야와 관리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이것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낮으로 지키며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았어요.

with
결심

본격적으로 성벽이 건축되자 적들의 분노와 공격은 더욱 심해졌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기를 들고 지키며 계속해서 성벽을 쌓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산발랏과 도비야처럼 갖은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방해해요.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성벽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켜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다섯째주

날짜: 2021. .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느헤미야 5:1-19 “참된 지도자, 느헤미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9.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0.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 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11.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꾸어 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12.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13.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14. 나는 아닥사스다 왕 이십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삼십이년까지 십이 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15.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밖에 하루에 은 사십 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16.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발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처사: 일을 처리함

서약: 맹세하고 약속함

녹: 벼슬아치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마다 나누어 주던 금품, 현대의 연봉이나 월급과 비슷한 개념

with
관찰

1. 느헤미야는 몇 년 동안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나요? (14절)

- ① 10년 ② 11년 ③ 12년 ④ 13년

2. 느헤미야는 어떤 일에만 힘을 기울이고 마음을 썼다고 했나요? (16절)

with
생각

이번에는 민족 내부의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왕에게 해마다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고, 유다로 돌아온 이주민들이 늘어난 상태에서 남자들이 성벽공사에 동원되어 농사를 짓지 못하자 식량이 부족해 진 것이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유다의 귀족과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 주며 큰 이자를 받아 이익을 착취하고 그 자녀들을 노예로 삼기까지 하였어요. 이 사실을 안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을 불러 당장 그만 두게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백성을 섬기며 솔선수범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 해 주었어요.

with
결심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에 있던 총독들과는 다르게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하지 않았지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에 전념하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참 마음으로 감동하여 모두가 느헤미야의 정직함과 바름을 따르겠다고 서약하였어요.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정직하고 바른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다섯째주 TIME 4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느헤미야 6:1-9 “산발랏과 게셈의 음모.”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의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 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2.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갈을 보내 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흥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3.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요?"
4.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네 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 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 다섯 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 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소.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7.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에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8.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
9.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느헤미야에게 전갈을 보낸 사람은 누구와 누구인가요? (2절)

- ① 산발랏과 도비아 ② 계شم과 도비아
- ③ 아닥사스다 ④ 산발랏과 계شم

2. 다음 구절을 읽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완성해 보세요. (9절)

“□□□ 나에게 □을 주십시오.”

with
생각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게 하려는 반대파들의 공격은 계속되었어요. 산발랏과 계شم은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편지를 보내 만나자고 했지만 느헤미야가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이유는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어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려는 계략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그것을 왕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with
결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방해해요. 산발랏과 계شم이 그러했던 것처럼 끈질기고 집요하고 강력하게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방해와 저항을 이기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늘 승리했던 느헤미야를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시를 읽어주세요.
3. 시를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아침의 향기>

-이해인

아침마다 소나무 향기에 잠이 깨어
 창문을 열고 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솔잎처럼 예리한 지혜와 푸른 향기로
 나의 사랑이 변함 없기를
 찬물에 세수하다 말고 비누 향기 속에 풀리는
 나의 아침에게 인사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유하게 녹아서
 누군가에게 향기를 묻히는
 정다운 벗이기를
 평화의 노래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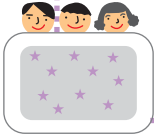
사랑하는 OO(아)야, 잘 잤니?

새로운 아침이 밝았어.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이 OO(이)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 우리 OO(이)에게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을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시는 새로운 날을 감사하며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미소 지으며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OO(이)가 되어보면 어떨까?

사랑의 하나님! 지난 밤에도 OO(이)가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밤을 보내고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OO(이)를 사랑하시고, 아빠와 엄마가 OO(이)를 사랑
 하는 것 같이, OO(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빠 엄마를 사랑하고,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찬양을 들려/읽어 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찬양 <나는야 주의 어린이>

- 파이디온 선교회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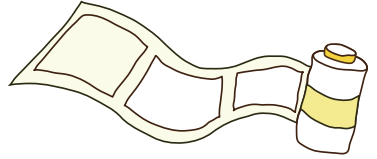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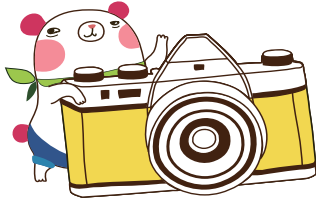
사랑하는 OO(아)야, 오늘 하루 잘 보냈니?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어. 하나님은 OO(이)가 항상 행복하고, 기쁘게 자라나길 원하신단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맞아.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을거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라는 OO(이)가 되기를 축복해. 함께 기도하자.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OO(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려요.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OO(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OO(이)와 우리 가족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드 PHOTO



초등2부



3-2 권봄

초등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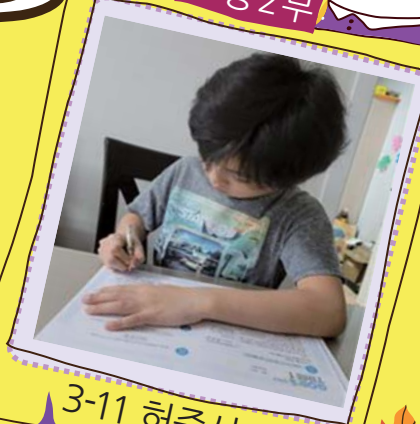
3-6 한영화

초등2부



3-11 임나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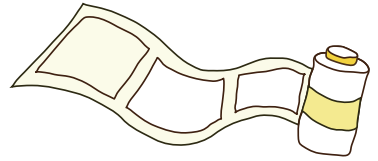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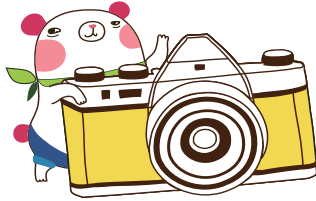
초등2부



3-11 허준서



위드 PHOTO



초등2부

3-13 민이엘



초등2부

4-3 김라희



초등2부

4-13 홍지우



초등2부

4-16 이주하



FUN FUN PLAY

숨 은 그림 찾기

아래 그림에서 숨은 그림들이 찾아보세요!
(찾을 그림: 당근, 촛불, 삼각자, 물고기, 콩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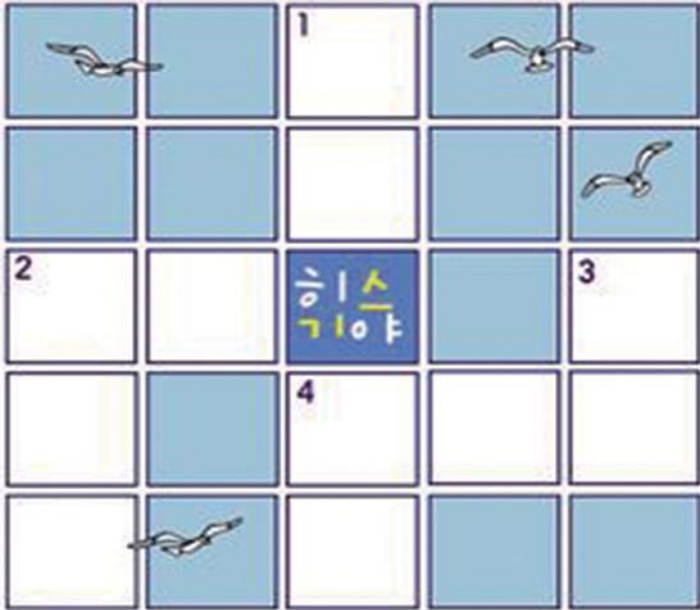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갔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와 홀로 하나님이 신 줄 알리이다 (열왕기하 19:19)

정답은 74p에서 찾아 보세요!

이 달 의 퍼 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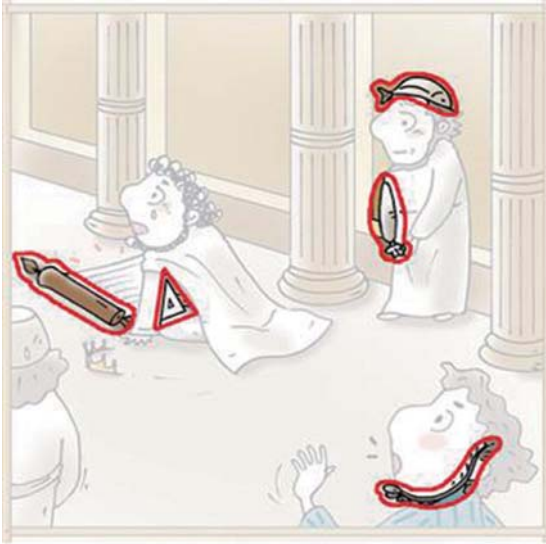
가로열쇠

2.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 우상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장소인 이것들과 제단을 제거했죠.(왕하18:22)
4.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자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을 약속하시며 태양의 이것이 10도 물러가는 것을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셨죠(왕하20:9~10)

세로열쇠

1.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만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분향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부수었죠.(왕하18:4)
2. 앗수르 왕. 유다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비방했죠.(왕하19:16)
3.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앗수르 왕이 이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전했죠(왕하19:14)
4.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왕하19:15)

정답은 74p에서 찾아 보세요!



숨은그림찾기 정답



이달의 퍼즐 정답

5월 QT +

STI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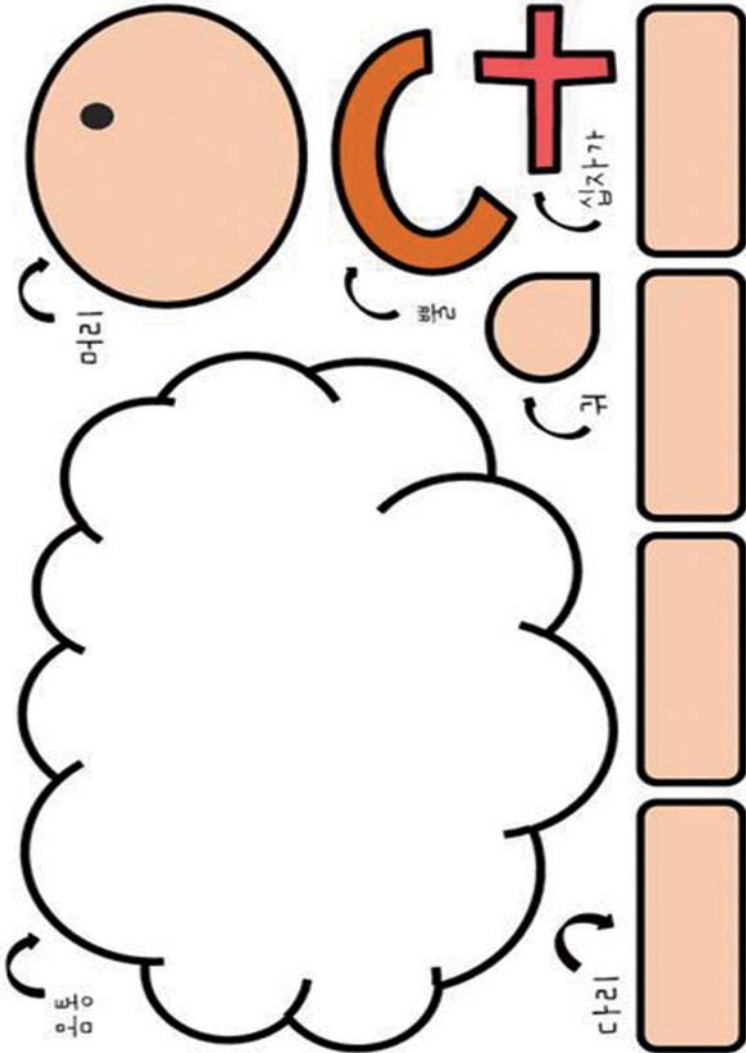
부 학년 반

이름 :



	1	2	3	4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보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요
로마서 8:1~11

- ◆기도손 안에 친구들이 성령님께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아요.
- ◆가위로 오린후 기도손을 반으로 접어 성령님께 기도해보세요.

